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제 24호> 2018년 5월 발행

「What`s Up, OITA!」는 세계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오이타와 인연있는 여러분들께,
일본 오이타현의 ‘지금’을 전달해드립니다.



【인사】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과장 토쿠노 미츠루(徳野 満)

오이타현 다케타시를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일본 엔터테인먼트 집단 DRUM TAO’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맹활약 중이며, 이번 럭비 월드컵 2019의 개최도시 특별서포터로 임명되었습니다. 한편, DRUM TAO가 제작한 오이타현과 미야자키현 2현 6개시정으로 구성되는 유네스코 에코파크 프로모션 비디오가 공개되었습니다.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으므로, 검색창에 ‘DRUM TAO’를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이타현 소식>

다가오는 ‘온천현 오이타 ㄹ 세계 온천지 서밋’

세계 각국 온천지의 수장 및 연구자가 한데 모여, 온천을 활용한 지역발전 가능성에 대해 토론하는 ‘세계 온천지 서밋’이 5월 25일(금)~27일(일) 벵투시 비콘플라자에서 개최됩니다. 서밋을 통해 일본의 온천 문화와 온천현 오이타의 매력이 널리 알려질 것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6일에 열리는 강연은 누구나 청강이 가능하므로,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온천지 서밋 홈페이지 : www.pref.oita.jp/site/onsen-summit/choukoushaboshuu.html (5/11 마감)

<5월 25일>

- ◆ 전국 온천지 서밋 (환경성 주최)
- ◆ 세계 온천지 서밋, 전국 온천지 서밋 합동 리셉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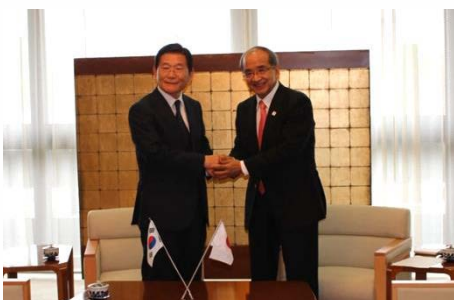
<5월 26일>

- ◆ 기조강연 : 요란다 펠도모 (전 유엔 세계 관광 기구 소속)
- ◆ 사례발표 : 관광 분야, 의료·건강·미용 분야, 에너지 분야
- ◆ 분과회 : 각 분야에 대한 국내외 대표 토론

<5월 27일>

- ◆ 익스커션 : 일본 제일의 온천현 오이타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총 4코스)

주후쿠오카한국총영사 예방



지난 4월 5일, 손종식 주후쿠오카한국총영사가 착임 인사를 위해 오이타현 지사를 예방하였습니다. 히로세 현지사는 세계 온천지 서밋에 한국 관계자 분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오이타은행 돗토리 럭비 월드컵 경기장으로 선정된 것을 소개하며 한국에서 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와주시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손종식 총영사는 규슈와 한국의 교류 역사는 매우 깊으며, 그 중에서도 오이타는 온천이 유명하고 음식도 맛있는 곳기에 앞으로도 교류를 돈독히해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제 24호> 2018년 5월 발행

오이타 100% 즐기기! 우스키성터&니오자역사의 길

우스키는 전국시대 다이묘인 오오토모 소린이 지은 우스키성의 성하마을로 번영한 곳이며, 과거 국제적인 상업도시로 무역이 활발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 취재는 따뜻한 봄 날씨 속에 운치있고 여유로운 분위기가 인상적인 우스키 성하마을에 다녀왔습니다.

우스키에는 우스키석불로 유명한 불교도시답게 수 많은 사찰들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지루할 틈 없이 걷다보니 돌길과 오래된 가옥이 이어지는 니오자 역사의 길에 도착했습니다. 특유의 고즈넉하고 운치있는 분위기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곳에는 기존에 절이었던 건물을 관광객을 배려한 무료 휴게소로 활용하고 있는데, 옛 자취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은 물론이며, 2층 창문 밖으로 보이는 니오자역사의 길이 무척이나 아름다워 우스키의 대표적인 포토 스폿이기도 합니다.

이 날 점심은 우스키 관광시설인 사라데우스키 안에 있는 음식점에서 우스키 향토요리인 노란 밥과 비지와 생선으로 만드는 키라스마메시, 카야쿠가 나오는 정식을 먹었습니다. 우스키는 분고수도에 접해있어 생선으로 만든 향토 요리가 많으며, 자극적이지 않은 맛에 소박하면서도 정갈한 한상이었습니다.

우스키는 에도 말기부터 간장과 된장 등 양조업이 활발했던 곳입니다. 핫초오지 상점가에 있는 규슈에서 가장 오래된 된장 가게를 찾아가 된장 소프트크림을 먹었습니다. 아이스크림 위에 된장 크런치와 된장 소스, 된장 파우더가 토핑되어 있어 단맛과 짠맛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뤄 중독성 있는 맛이었습니다.

산책 코스 마지막을 장식한 우스키성은 현재 하얀 성벽만 남아 우스키공원으로서 시민들의 산책로가 되었지만 약 1,000그루의 왕벚꽃나무가 흐드러지게 필 때 짙은 벚꽃 축제가 개최되는 등 봄나들이 하기 좋은 벚꽃 명소이기도 합니다.

한편, 지난 2월 우스키역에 귀여운 안내판이 설치되었습니다. 시 관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일본어로 좋아하다는 뜻의 스키(好き)를 활용해 우스키의 스키를 빨간 하트로 대신해 표기해두었습니다. 우스키역을 방문하시면 하트가 그려진 귀여운안내판을 찾아 인증샷을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